

「문화체육관광부의 자율성 침해 관련」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 결의문

대한체육회 대의원 일동은, 다가오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을 모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국민께 약속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요청드립니다.

대한체육회 대의원 일동은,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미는' 국정방향에 역행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체부의 대한체육회 운영 자율성 침해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과거부터 대한체육회의 기관 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해 왔으며, 일방적인 대한올림픽위원회 분리 추진으로 IOC의 우려를 자아낸 바가 있다. 최근에도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심의의결한 정관에 대해 명확한 의견표명 없이 허가 보류 등 행정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올 초 대한체육회는 체육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관 개정안을 법률전문가 및 IOC의 검토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스포츠공정위원회('23.1.26.), 이사회('23.2.10.) 및 대의원총회('23.2.28.)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문체부는 4차례의 정관 변경 허가 요청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

또한,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임 받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에서 정부 예산으로 의결한 '로잔 국외연락사무소' 사업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사업의 필요성과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8개월간 사업 승인을 하지 않는 등 재정지원에 따른 관리·감독이라는 미명하에 과도한 행정 감독권을 행사하며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 특히 문체부가 2015년 '로잔협력센터'라는 유사 사업을 추진하였던 전

례가 있음에도, 파리올림픽을 앞둔 현 시점에 사업의 중복성을 운운하며 사업 승인을 지연하는 것은 건강부회(牽強附會)식 주장이다.

이번만의 사례가 아니다. 문체부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도 부족한 때에 조직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체부-대한체육회-개최도시 간의 상호 합의를 번복하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혼란을 자초하는 동시에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바도 있다.

대한체육회 대의원 일동은 이러한 문체부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그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결한 대한체육회의 정관 변경을 허가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로잔 국외연락사무소' 사업을 연내 조속히 승인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과도한 운영 개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와 체육단체를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아닌 대한민국 체육 선진화를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하는 주체로 분명히 인식하기를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금과 같이 체육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전 체육인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23년 12월 1일

대한체육회 대의원 일동(124명)